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2026. 9. 22.(화) 11:00 / 9. 23.(수) 조간 배포 2026. 9. 22.(화) 06:00

환절기 닭 관리, 평소와 다른 변화부터 살피세요

- 물·사료 섭취량, 산란율…평소 기록과 비교해 이상 징후 확인
- 닭이 한곳에 몰리거나 특정 구역을 피하면 찬바람·온도 편차 점검
- 낮과 밤 기온에 맞춰 환기·난방 조절, 급수시설·깔짚 관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환절기에는 닭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계사 온도를 관리하고, 물·사료 섭취량과 행동 등 평소와 달라진 신호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육계의 적정 사육 온도는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다. 0~1일령에는 34도, 2주령에는 28~29도, 5주령에는 22~23도 수준으로 성장할수록 온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관리한다. 육계 후기에는 사육 온도가 적정 수준보다 10도 정도 낮아지면 사료 섭취량이 7% 이상 늘고, 같은 체중을 늘리는 데 필요한 사료량도 약 15% 증가할 수 있다.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계사 안의 온도와 공기 상태도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 환기량을 지나치게 줄이면 습기와 암모니아가 쌓이고, 입기구로 들어온 찬 공기가 닭에게 직접 닿으면 저온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물 섭취량(음수량), 사료 섭취량, 산란율을 평소 기록과 비교한다. 물 섭취량이 갑자기 줄거나 늘면 급수관 막힘, 급수기 높이와 수압을 점검하고, 시설에 이상이 없다면 사료 섭취량과 닭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산란계는 물·사료 섭취량과 산란율의 변화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다.

닭이 한곳에 몰리거나 일부 구역을 피하는지도 살핀다.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 찬바람이 직접 닿는지, 계사 안 위치별 온도 차가 큰지 확인하고 입기구 방향과 열린 정도, 난방 상태를 조절한다. 특히 어린 닭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더욱 주의한다.

환기량은 낮과 밤의 외부 기온에 맞춰 조절한다. 새벽과 밤에는 최소한의 환기로 습기와 암모니아를 내보내고, 낮에 기온이 오르면 계사 안 상태를 확인하며 환기량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여름철에 맞춘 환기팬, 입기구, 난방기, 저온 경보 설정도 환절기 여건에 맞게 다시 조정한다.

육계 계사의 깔짚 상태도 확인한다. 특정 구역 깔짚이 반복해 젖으면 급수기 누수와 수압, 급수기 높이, 해당 구역의 환기 상태를 함께 점검한다. 젖은 깔짚은 바로 정리하고 원인을 개선해 암모니아 증가와 발바닥 피부염을 예방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김경운 센터장은 “환절기에는 성장 단계에 맞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평소 기록과 닭의 행동 변화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낮과 밤의 기온차에 맞춰 환기와 난방을 조절하고 급수시설과 깔짚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절기 육계·산란계 사양관리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경운 (033-330-9500)
		담당자	연구사	홍의철 (033-330-9555)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붙임 **환절기 육계 · 산란계 사양관리**

□ 환절기 이상징후와 점검사항

현장에서 확인되는 변화	우선 점검사항
음수량이 평소보다 갑자기 감소	급수기·급수압·급수관, 사료섭취량, 계군 상태
닭이 특정 위치에 몰리거나 일부 구역을 피함	찬 공기 유입, 입기구 방향, 계사 내 온도 편차
깔짚 일부가 반복적으로 젖음	급수기 누수·높이·수압, 해당 구역 환기 상태
새벽에 계사 냄새가 심해짐	최소환기량, 환기팬 작동 여부, 습도
산란율과 사료섭취량이 함께 감소	음수량, 온도 변화, 사육환경 및 계군 건강상태

□ 환절기 계사 공기 흐름 도식